서울시 공공자전거 관리 – BBC

201914111 전영욱

이 서비스는 서울시 공공자전거 고장 관리를 위한 것이다.

공공자전거가 고장 위험이 있을 때 신속한 수리 및 교체를 수월하게 해주는 서비스다.

이용거리, 이용횟수, 이용시간 등을 고려해 고장 위험도를 분석하고 위험도가 일정 이상일 때 다른 자전거로 교체를 한 후 회수한 자전거를 수리하는 서비스다.

자전거마다 이용거리, 이용시간, 이용횟수 등의 데이터가 생성된다.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전거 고장 위험도를 판단한 후 일정 지수 이상이면 자전거를 회수하는 것이 목적이다.

이 서비스가 제대로 정착하면 자전거가 고장이 나서 대여를 못하거나 이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다.

또한 고장이 난 자전거지만 착오 등으로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시민들이 고장난 자전거를 그대로 쓰는 상황이 발생한다.

이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.

이 서비스는 이런 상황도 방지할 수 있다.

이 서비스는 서울시 공공자전거 관리를 더욱 용이하게 해주기 위해 기획되었다.

현재 서울시 공공자전거 운행대수는 2015년에 비해 7.6배 증가했다. 하지만 관리 인력은 3.3배만 증가했다.

이는 한 사람이 관리해야 할 자전거 수가 증가했다는 의미다.

그러다 보니 사고 건수도 10만건당 2.16건으로 늘었다.

이런 상황에서 당장 예산 등의 이유로 관리 인력 충원이 쉽지가 않다.

즉 당장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의미다.

이 서비스는 서울시 공공자전거 고장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주는 것이다.

이를 이용하면 관리 인력 부재 등으로 생기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.

또한 가용할 수 있는 인력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써 직원들의 피로도를 낮출 수 있다.

기존에는 고장 신고를 접수한 후 처리하는 식이라 시간도 걸리고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고장이 난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생긴다.

하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장이 나기 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, 고장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도 고장 위험도를 통해 고장 여부를 예상할 수 있게 된다.